

의안번호	제 526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 323 회)

베트남 빈폭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8월 23일

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의안
번호

526

제출연월일 : 2013년 8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 증대
-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 및 중국·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지역으로의 국제교류지역 다변화가 필요
- 정부도 2009년 수립한 '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'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호혜적인 한·베 FTA, 원전분야 협력강화, 산업기술 등 협력분야를 확대할 방침임.
- 베트남 빈푹성과 우리 도는 지난 2008. 10. 21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래, 양 대표단 상호방문, 공무원 상호파견, 양봉마을 간 민간교류, 농기계 지원사업 등 자매결연 체결 지역과 같은 활발한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,
- 양 지역 간 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,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
 - 우리 도 대표단이 10월 말경에 빈푹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함.
-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은
 - 무역교류 및 민간투자 상호지원 등 경제 분야를 비롯
 - 농업, 문화, 교육, 관광,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측의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함.

3. 참고자료 : 붙임

- 양 지역 비교표
- 베트남 개황
- 위치도
- 양 지역 교류현황
- 향후 교류계획
-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기대효과
- 자매결연협정서(안)

▶ 양 지역 비교표 ◀

구 분	총 청 북 도	베트남 빈푹성
면 적	○ 7,406km ² ('12)	○ 1,236 km ² ('12)
인 구	○ 160만명 ('12)	○ 101만 명 ('12)
위 치	○ 대한민국의 중앙 ○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	○ 베트남 북북 ○ 수도 하노이 근접
주 도	○ 청주	○ 빈옌
기 후	○ 온대 몬순 기후	○ 열대 몬순 기후
시 차	○ GMT + 0800	○ GMT + 0700
GRDP	○ 약 347억 불 (38조7,578억 원, '11)	○ 약 20억 2천만 불 (43억 4,300만 동, '12)
1인당 GRDP	○ 약 22,535 불 (2,518만원, '11)	○ 약 2,000 불 (4,300만 동, '12)
산 업	○ 서비스 기타 : 51.5% ○ 제조업 : 44% ○ 농림어업 : 4.5% ('11)	○ 공업-건설: 53.4% ○ 관광-서비스: 33.1% ○ 농업-임업-어업: 13.5% ('12)
주요 수출품목	○ 전자전기>기계류>화학공업	○ 섬유의류>오토바이>신발
주요 수입품목	○ 전자전기>화학공업>농림수산물	○ 기계부품>섬유>신발
관광자원	○ 속리산국립공원 ○ 소백산국립공원 ○ 월악산국립공원 ○ 청남대, 직지 등	○ 담다오산 지구(리조트, 골프장) ○ 담박 호수(리조트, 골프장) ○ 다일라이 호수 관광 리조트 ○ 타이띠엔 수도원, 빈손 고탑 등

▶ 베트남 개황 ◀

국 명	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(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)
독립일	1945. 9. 2
수 도	하노이(Hanoi, 670만명 정도, 2011년 기준)
행정구역	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의 성으로 구성
면 적	<p>33만km² (한반도의 약 1.5배, 남한의 약 3.3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부 : 메콩(Mekong)강 하구 델타를 비롯한 평야지대 - 중부 : 대부분 산악지대, 추옹송산맥이 남북으로 종단 - 북부 : 대부분 산악지대,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약 1,140km인 홍하(송코이 강)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</p>
기 후	아열대(북부), 열대몬순(남부)
민 족	비엣족(깁족, 전인구의 89%), 타이족, 화교(약 82만명), 크메르 족 등 54개 소수민족
공용어	베트남어 (문맹률 9.7%, 2009년 기준)
종 교	불교(12%), 가톨릭(7%)
인 구	8,950만('12, 세계 13위)

▶ 위치도 ◀



베트남

▶ 양 지역 교류현황 ◀

- 2007. 10 : 빈폭성 부성장 일행이 방도하여 교류의향 전달
- 2008. 5 : 충청북도대표단(단장 행정부지사) 빈폭성 방문
지사님 우호교류의향 서신 전달
- 2008. 9 : “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” 행사 초청
- 2008. 10 : 빈폭성 대표단(단장: 빈폭성장) 우리도 방문
우호교류협정체결('08. 10. 21)
- 2009. 7 : 우호교류활성화 및 해외시장개척 등을 위한 도 대표단(단장 : 정무부지사) 빈폭성 방문
- 2010. 3 : 도 대표단 동남아 교류지역 순방 중 빈폭성 방문
(단장: 행정부지사)
※ 콤바인 1대, 트랙터 1대 지원(52백만원)
- 2010. 9~10. : 빈폭성 실무단 제천한방엑스포 참가 및 빈폭성 전통
예술단 초청공연
- 2010. 12 : 충주 재오개 하니마을과 빈폭성 황손 양봉마을 간
우호협력 협정 체결
- 2011. 3 : 첫 빈폭성 파견직원(외무과 1명) 입국
- 2011. 6 : 주한 베트남 대사 방도
- 2012. 6 : 빈폭성 대표단(단장: 빈폭성장) 우리도 방문
- 2012. 11 : 도의회 대표단(단장: 도의회 의장) 빈폭성 방문
※ 양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
- 2013. 3 : 우리 도 공무원 빈폭성 파견(국제통상과 1명)
- 2013. 7 : 도의회 초청 빈폭성 대표단(단장: 빈폭성 공산당
부서기) 우리 도 방문
※ 지사님 곡물건조기 기증서 전달 및 환영오찬

▶ 향후 교류계획 ◀

- 양 지역 간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운영
 -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호 문화이해 프로그램 공동개발
 - 민간차원의 문화·청소년·스포츠 분야 등 교류
- 공무원 상호파견 업무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 - 양 지역정보와 정책교환을 통한 행정수요 파악 및 정책개발
 -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
- 양 지역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
 - 독립대학 및 기타 도내대학과의 교류지원
 - 양 지역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프로그램 추진
- 경제 비교우위 분야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
 - 양 지역의 우수제품 판매 및 전시행사 정보 교환
 - 양 지역의 구매사절단 상호 파견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
- 주요 경제, 문화, 과학 등 지역행사 상호 참여 및 지원
 - 경제, 문화, 과학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교류 심화
 - 정부 및 민간행사 관련 기관·업체 상호 참가 지원
- 농업분야 상호 협력
 - 양 지역 간 농업정책 및 기술정보 교환
 - 농작물 재배 기술 등 양 지역 간 경쟁력분야의 선진기술 교류

▶ 자매결연 체결의 기대효과 ◀

□ 동남아지역과 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

- 2007년 인도네시아 자매결연에 이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두 번째 자매결연 체결
- 베트남은 30억 아세안 시장의 관문으로 지난 해 기준, 대 아세안 무역 수지 흑자의 70%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
- 양 국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경제, 행정, 문화, 농업, 대학 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 추진

□ 경제, 농업, 환경보호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- 제품의 현지 구매정보 교류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
- 양 지역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
- 선진농업 및 환경보호기술의 지원을 통한 관련 제품의 수출 증진

□ 동남아 지역으로의 국제교류 다변화

- 국제교류 관계의 다변화를 통한 중국·일본과의 대응력 향상
-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어 지방정부간 발전적 관계 정립

□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대학 간 교류 확대

- 양 지역 대학 간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 지원
-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

□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세계시민으로 의식 및 수준 제고

- 국제교류를 통한 도민의식의 선진화 및 세계시민 의식 제고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간

자 매 결 연 협 정 서(안)

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빈푹성장이 대표하는 베트남 빈푹성(이하 “양 도·성” 이라 한다)은

- 2008년 10월 21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한 우호협력 교류협정서와
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

양 도·성은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
제 2 조

1. 양 도·성은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 분야
- 나.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 교류
- 다. 공무원 상호파견, 대학 간의 협력, 학생교환 등 인력교류 및 연수 교육 분야
- 라.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·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
- 마. 기타 양 도·주지사가 합의하는 분야

2. 양 도·성은 자국 내 법규를 준수하며,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

- 1. 충청북도 및 빈푹성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.
- 2.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

임을 진다.

3.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.

제 4 조

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,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.

제 5 조

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.

제 6 조

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7 조

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. 다만,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,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8 조

본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여, 이를 양측이 보관한다.

2013. 10. 21.
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
베트남 빈푹성장

이 시 종

풍 광 홍
